



외국인이 본 한국 불교언론

올타리에 있는 우리가 아닌, 바깥 외국인이 본 한국불교언론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 한국에 와서 한국불교를 배우고자 한 이들은 말과 글을 배우기 위해, 또는 말과 글을 배우면서 교계 신문들을 읽고 불교방송과 불교TV를 즐겨보곤 했다고 한다. 이들중 러시아인인 블라디미르 티코노프 교수와 박사과정을 밟고있는 대만비구니 유과스님의 눈을 통해 한국불교언론의 위상과 그 역할을 접하게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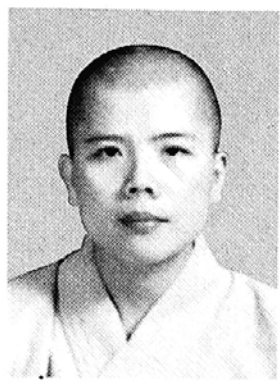
(편집자 주)

“대중교회 역점 포교전문지돼야”

1938년부터 줄곧 한국에서 공부하며 현대·불교·주간·법보 신문, 불교방송, 불교TV 등을 접해 오면서, 한국의 불교언론이 종단의 대소사(大小事)와 스님들의 활동을 보도하는 데 많은 시간과 지면을 할애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법문·문화재·청소년 등과 관련한 기사도 다루고 있지만, 대만의 불교언론과 비교하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느낌이 든다.

대만 불교언론매체는 한국과 비교해 월등히 많다. 대만에는 불교계 공중파TV가 2개, 케이블TV가 2개가 있으며 신문과 회보의 수는 일일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두 나라의 불교언론이 종단이나 사찰로부터의 재정 지원에 힘입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보도 내용은 사뭇 다르다.

한국의 불교언론에서는 종단 행정, 사찰 불사, 스님 행적, 단체 활동, 논문 소개, 불교관련 정부정책 등의 내용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사건과 현상 보도에 주력하는 것이



유과스님
동국대 불교학박사과정·대만

다.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우선 순위가 문제이다. 언론이라고 해서 모두 부정의 최결자요 심판자일 수만은 없다고 보며 또 독자들이 신선하고 충격적인 기사만을 탐하는 경향이 있다고는

“
단순보도 보다
비블자 발심
신심키우는
기사에 비중
”

해도 불교계 언론이 대중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일만을 능사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불교언론은 포교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매체라는 생각 때문이다. 포교란 비블자들을 불자화하고 불자들의 신심을 증장시키는 것을 뜻한다. 그렇기에 언론은 불자들의 신심을 지키고, 비블자들의 발심을 돕는 그런 내용을 우선적으로 보도

해야 한다고 본다.

현대불교신문에서 매주 게재하고 있는 '신행 캘린더', btm의 '부처님 수습' 등은 불자들의 신심을 다질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한다. 원력을 세운 불자 소개며 고승들의 법문,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리해설 등도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대만의 불교언론에서 선호하는 보도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자체공덕회의 케이블TV는 불교사회복지 관련 보도가 많아 자비행을 원하는 불자들에게 호평받고 있으며, 광명세계의 공중파TV는 프로그램 막간을 이용해 10~20분 가량 고승법문을 방영하고 있는데, 스튜디오를 벗어나 대청마루, 넓은 바위, 길 위에서 스님들이 설하는 생활법문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자재공덕회의 케이블TV는 불교사회복지 관련 보도가 많아 자비행을 원하는 불자들에게 호평받고 있으며, 광명세계의 공중파TV는 프로그램 막간을 이용해 10~20분 가량 고승법문을 방영하고 있는데, 스튜디오를 벗어나 대청마루, 넓은 바위, 길 위에서 스님들이 설하는 생활법문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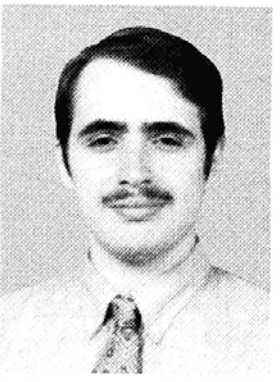
신심이 깊은 불자라면 어느 나라에 살든지 찾는 것은 똑같다. 따라서 한국의 불교언론들은 대중들의 발심을 유도하고 신심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의 기사를 찾아주려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정리=오종욱 기자
(gobacou@buddhaphia.com)

“종교언론도 눈치보면 설곳 없어”

나는 주마다 현대불교신문을 비롯 몇 개의 교계 신문을 파악하고 본다. 이들 신문은 교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알림으로써 불자들의 단결을 기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경전, 불교미술 등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대중화하고 고승들의 법문과 상담을 통해서 불자들의 신심을 자극하고 신행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불교 관련 논문을 소개하는 것은 다른 신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귀중한 정보이다. 나는 불교관련 인터넷뉴스를 소개한 고정란을 꼭 챙긴다. 이 정보는 불교학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문을 보면서 한국의 불교언론이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음도 간파할 수 있었다. 종교는 본래 초현실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비세속적인 것이다. 교계 신문에서 이 세상을 초월한 듯한 느낌을 주는 옛날의 선시나 효봉·구산·법정 스님들과 같은 현세 선지식들의 뛰어난



블라디미르 티코노프
경희대 교수·러시아

법어, 함선 체험에 대한 수행자들의 글을 좀더 많이 실었으면 한다. 인사 동정이나 종단 행정 등에 대한 현실적인 보도가 없을 수 없겠지만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할 것 같은데 교계신문에서는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
선지식의 범위
더 많이 넓고
타종교 교리도
소개했으면
”

그리고 현재의 말법 세상에서 종교는 불교 기독교 등으로, 불교도 대승 소승으로, 대승불교도 중국, 한국, 일본 불교 등으로 각각 나누어져 있지만 진리는 하나이다.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교계 신문일수록 오히려 기독교나 힌두교 자이나고 등 타종교의 교리를 더더욱 알뜰히 소개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근래 한국의 주요 종교로 급

성장한 기독교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기독교의 신성한 수행자들을 도반으로 대등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사람이 교화에 다니는 절에 다니든 남에게 배울 줄 알면 산업이 생긴다는 의식을 교계신문 독자들이 가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요즘 교계 신문에는 기독교에 대한 호의적인 기사가 과연 있는가?

신문의 가치는 다른 무엇보다도 비판 정신에 있다. 더군다나 한국 불교의 근·현대사와 오늘날의 교계현실이 왜곡과 변질, 세속화 등으로 정황에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비판을 더욱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제 시대 승려들의 친일 행각, 해방 이후의 국가와 정치인에 대한 승단의 지나친 의존, 승종의 부재, 승려의 계율 무시 등은 언론의 비판을 받지 않고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교계 신문들은 교단의 친일 행위와 같은 예민한 문제들을 과연 다루는가?

눈치로 사는 언론은 그 존재의미를 상실한다. 불교언론들은 앞으로 보다 초세속적이고 포용적이며 현실비판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



◇현대불교신문이 서비스하는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hia.co.kr) 홈페이지 초기화면. 불교언론은 각시마다 전자신문에 큰 관심을 보이는 등 뉴미디어 포교기반을 다지고 있다.

불교언론 5년전과 5년후

빠른 속도로 '매체의 질' 향상

불교언론을 말하면서 투자규모의 빈약과 관리능력의 부재를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한때는 "언론매체를 사유화하고 또는 사목적화의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이렇다보니 공정한 보도, 전문인력의 양성, 불교발전 위한 신문의 역할 수행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현대불교신문은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태어나 불교언론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왔다. 이에 현대불교신문 창간 5돌을 기점으로 5년간 불교언론의 변화와 5년 후를 전망해 본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독자들의 요구는 지금보다는 훨씬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교계신문은 인터넷이라는 무한공간에 큰 관심을 가지면서 각 사마다 뉴미디어를 가진 '포교의 기반'을 삼을 것이다. 이미 이러한 현상을 나타나기 시작했다.

독자 분포는 좁은층, 불교에 관심있는 예비불자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도가능보다는 신행·수행·지상강좌 등 깨달음의 길을 제시하는 지면으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이를 위한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종 불교문화사업 등으로의 다양한 기능 확대로 언론매체가 불교문화센터로서 그 영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 대불교 창간 당시인 94년 교계에는 불교, 법보, 주간, 대한불교 등이 주요 언론매체로 자리잡고 있었다. 이들 신문은 편집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출간 주 중점 또는 주요 종단의 행적 뉴스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또 불교·법보신문은 PC통신 전리인에 기사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했다.

이 즈음부터 신문의 외형은 물론 내용에 이르기까지 '경쟁'의 개념이 서서히 자리잡기 시작했다.

16면으로 출발했던 현대불교가 97년 4월 들어가는 불자들의 지적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20면으로 증편을 단행하자 곧바로 주요 교계신문들은 잇따라 12면에서 16면으로 증편했다. 이에 현대불교신문은 같은 해 10월 24일 16면으로 다시 증편하면서 변화를 시도했다.

창간 때부터 한글세대까지 교계신문 독자로 성장한 '젊은 불교'를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담은 전면 가로쓰기 편집도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교계 신문들도 제호의 크기와 형태변화를 꾀하면서 가로쓰기 체제로 전환했다. 또 현대불교의 4개면 컬러편집도 컬러면 2개에 그쳤던 교계신문들의 변화를 유발시켰다.

신행·포교지를 표방하고 콘스

전면 가로쓰기·신행페이지 증가 전자신문등 뉴미디어 포교 가동

중 문화사업은 교계신문이 문화포교의 가능성을 제공했다.

성태용 교수(건국대 철학, 우리는 선우 지도위원)는 "교계신문은 현대판 대중공사"라며 "현대불교신문의 창간으로 교계신문은 공의의 장으로서 그 중요성과 역할의 막중함을 부여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지난 5년간 교계 언론이 이뤄온 괄목할만한 성장은 이후 불교언론이 어떤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가를 제시한다. 차세대 전자매체로서의 '전자신문'은 교계언론은 물론 불교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보다 편리하고 고급화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운·한영우 기자
(swjung@buddhaphia.com)

서북 황토 토종 오가피농장

“한중의 오가피는 한마차의 금속을 갖는 것보다 낫다” - 본초강목(P 1732)

· 황토밭에서 10년이상 저탄 무공해 오가피 · 유기농법에 의한 생명력이 가득찬 오가피 ·

KBS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MBC 9시뉴스, 조선일보 등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어 화제가 된 오가피 제품을 생산농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판매합니다. 99년 1월 9일자 일간스포츠에 보도 (오가피 알아봤더니 숲가피) 에 따르면 이종범, 선동렬, 이봉주 등의 유명 운동 선수들을 비롯한 대표선수 88명이 오가피를 상복하여 효과를 보고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북황토 토종오가피 농장에서는 유기농법으로 오가피 5천여그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의 양심을 걸고 정직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협생, 고시준비생에게 탁월한 효과 보장.
※여성중앙 9월호 (P636) 다이어트 최고의 작품으로 소개. (경희대 육장수 박사)

☛ 전화문의 및 농장방문을 환영합니다.
☛ 복용사례와 오가피의 효능에 관한 자료도 보내드립니다.
☛ 제품 오가피추출액, 표목분말
☛ 전화문의시 전국 택배 배부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3리 9-5 서북오가피직판장
☛ 전화 : 0333)682-503, 8588, 682-4965 (농장)
FAX : 0333)682-5034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myhome.netsgo.com/baeghj/

새로운 형태의 황토방 탄생!

· 피라미트 이글루형 황토방 규격 표준형 : 49m²

- ①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를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황토방
- ② 황토방을 순수 황토만을 사용한 이글루형으로 시공함으로써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내부공간
- ③ 전통방식의 구불시공으로 황토의 장점을 최대화
- ④ 정신 및 신체건강을 위한 최적의 황토방
※ 황토주택시공 및 황토 흙벽돌 판매

대륙건축 황토방 사업부
대표 이성우
경기도 용인시 마평동 530-3
TEL : 0335-336-6563
FAX : 0335-338-8923
H.P : 011-9680-5055

언제나 '새로운' 부처님 가르침!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전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참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

회주 혜성
주지 광복

대중일동

■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64번지
TEL : 종무소 02)993-3161~3 / FAX : 02)993-3164